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이강희
편집인	이정희
편집장	최원
발행처	외대신문사(252-7128, 961-4151) 외대학보(252-7045, 961-415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황산리 499
인쇄인	김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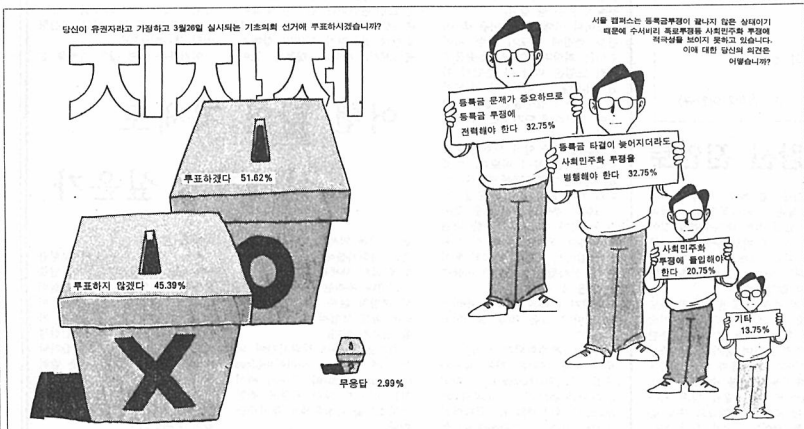
560호 1991년 3월19일(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주간)

THE OE DAE HAGBO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 2453호

외대인, 현정세 이렇게 생각한다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감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표출



개강을 맞은 후 보름만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학생들은 잊을 수 없는 학내의 정세 속에서 한가시한 시간을 두지 못하고 있다. 수시비리규탄 국민대회가 지난 16일(토) 전국에서 열렸고, 그로부터 열흘 후가 되는 다음주 26일(화)은 민주주의의 불투명하다고 하는 지방자치제 시군구 의회 의원선거가 치러진다. 하지만 서울캠퍼스의 경우, 추가등록기간을 며칠 남겨놓고서 총학생회장은 단식 일주일을 할 예정에 두고 등록금부족에 학생들의 힘을 모아내고 있다.

우리의 학생들의 관심은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우려하듯이, 후보등록 경쟁률 2.35대 1 만큼이나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에 대한 참여도가 비교적 높은 대학생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띄는 일반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4백명의 학생들중 45.39%를 차지하는 1백82명의 학생들이 "이번 투표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인적이 드문 설명한 유세장에서, 자기선거구역의 출마후보조차 모르고있는 시민들의 표정에서 손쉽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낮은 관심은 가까운 곳, 바로 우리 학교내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무관심과 선거참여 열의부족은 다름아닌 지금의 정치정세에 대한 불신감으로 부터 기인한다.

통계학을 통한 다양한 사람이 없어서, "지자체 본래의 의미를 찾아서, 선거의 가치가 전혀 없어서, 등으로 설명했다. 또한 후보부족과 선거제비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답변은 선거가 국민의 아무런 동의나 합의도 없이 민자당의 뜻에 의해 임의로 결정된다는 점, 지방자치제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불신감이 부족하다는 점 등 수많은 까닭을 가지고 있다.

도전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감이 모든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으로 변해 "부품이 나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결과는 상반되게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재야세력의 참여 여부에 대해 38.25%인 1백53명이 "승패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내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답변해 재야세력에 대한 낮은 지지도와 불투명한 당선 전망에도 불구하고 제도 여야 당 성향 인물의 당선보다는 재야세력의 당선을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환경단체, 민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재야계 인사들은 어느정도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선거에 나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등록금부족과 관련된 "서울캠퍼스는 등록금부족이 끝까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시비리 투쟁을 사회적민주주의에 귀속시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의견에 대한 당시의 의견은 어떻게 되었는지 서울-용인 양캠퍼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등록금부족에 전폭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32.75%인 1백31명인데 반해 이에 대한 서울-용인 학생들이 의견은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서울의 경우, 97명대 79명으로 "등록금부족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32.75%인 1백31명인데 반해 이반면 용인의 경우는 34명대 52명으로 "사회민주주의를 병행한다"는 응답이 34.71%인 1백12명이었다. 또한, "등록금부족"과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서울은 97대 40, 용인은 34대 36을 보여 양캠퍼스 학생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설

1만3천 외대인의 문제다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학생들이 아직 결정할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4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이 단식을 들어 오느라 6일째 접어들고 있다.

등록금부족에 있어서 양캠퍼스의 상황을 보면 답답한 생각을 거듭할 수 있다. 그것은 서울총학생회가 지난 2월28일 용인총학생회와 대항급간담에 단독 가 합의한 등록금인상률 15.53%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여 등록금 및 등록금조정위원회의 제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용인총학생회는 확대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가합의,사합의"에 따라 기로 결정함으로써 해서 양총학생회가 분리되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로인해서 양산학생들은 대부분 등록을 마친 상태이나 이런 학생들은 등록을 할것인가, 말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캠퍼스의 "등록금부족"이라는 문제가 말 뿐인 공동문제로 되어 버린 지금 등록금부족은 서울캠퍼스의 외로운 투쟁으로 전개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양캠퍼스간의 불협화음은 결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대항급간담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결정지나, 잘못됐던 한 그간의 진행상황이 아닌 앞으로의 투쟁태세일 것이다.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등록금부족이 조속히 끝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양캠퍼스간의 불협화음은 결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대항급간담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이다.

양캠퍼스간의 불협화음은 결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대항급간담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결정지나, 잘못됐던 한 그간의 진행상황이 아닌 앞으로의 투쟁태세일 것이다.

장기집권의 최후통첩

권력집권적 현상들이 연방 버티고 있다. 그 중 6공최대의 비리 "수사부처 분장사건"이 원형으로 남았고, 전산의 주범인 "보이지 않는 손"은 그 후의 대가로 "지방자치제(이하 지지제)실시"를 연방적으로 강제하였다.

그러나 참된 지방자치의 자율적 발전과 지방주민의 자발적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권력집중을 수직적으로 분할한다는 지지제의 본래적 의의는 흔적없이 사라지고,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30여년 동안 "민주주의 학교"라는 지지에 실연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온 민중의 의지를 철저하게 기만한 것이다.

그러나 지지제에서 나타난 반민주적 작태는 지지제만으로 국한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예로부터 잘못된 기만에 성립된 현 정권의 본질적 측면에서 장기집권 구도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정권세력의 권력장기화를 위한 일련의 조짐들은 거대여당의 탄생은 단초로써 노골화 되었다. 지난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국공조법, 방출법개편, 정부구조개편 등으로 내각제개헌의 제도적 장비를 갖추었고 권력수현상을 방지하기 12.27 개헌을 단행, 권력을 장기간에 걸쳐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하였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장기집권 요소를 내각제개헌과 맞물리며 진행되고 있음에 외부적으로는 뇌물유사사건, 수사사건의 비리가 폭도되자 집권당은 "지지제"를 최후통첩으로 제시하여 실시·강행한 것이다.

장기집권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번 지방의회선거에서 민권유권진영에서는 "수사사건"에만 온 정신이 쏠려 버려준바라기엔 놀라울 정도로 부족했다.

분명 "수사사건"이 이번 회고의 사건이며 제2의 6월항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록에 될 수 있지만, 권력을 가진자들은 자신들의 기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난도 감내하려는 추상이 있다. 이번 기초의회선거는 그들의 허위실정전변이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지제는 진행중인 단계이며 더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다름아닌 정권의 장기집권 요소의 마수인 내각제개헌 투쟁에 있는 것이다.

외대학보 광고 이야기-첫번째

1백일의 고민과 광고부

우리는 지난 1백일 동안

단 하루도 쉼 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대학신문 지면의 1/3-광고면,

외대학보 12면가운데

4면을 담당하는 「광고부」...

「광고부」는

외대학보 8개 어느 부서보다

책임이 막중함은

깨달았습니다.

■외대학보 전체 기자 일동

흡산의 소리

외대학보에서는 학내·외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인정이 넘쳐 나는 따뜻한 사안에 대한 훈훈한 목소리를 '흡산의 소리'에 담고 있습니다.
『흡산의 소리』는 2페이지 원고지 2~7매로 형식은 자유롭고(시형, 수필, 편지글 등) 독자 만평, 독자 사진도 받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까지 학생회관 2층 학생 기자실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산차 마시기 운동을 보며 외세 문화 절절 작은 것 실천부터 시작해야

『자』문화는 식사문화와 더불어 한 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대의 변천을 겪으며 차가 우리에게 주는 문화적 함의를 재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매개체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누구든 전작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지난 12일부터 이문종학생회주최로 진행되었던 「국산차 마시기 운동」을 보면서 많은 점을 느끼게 되었다. 우선 「국산차 마시기 운동」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 정도가 매우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사실을 단순히 기금 마련을 하기 위한 행인지도 아닌지는 의의가 없다. 사실 학우들은 외세문화와 절절해 상당부분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실제로는 그에 맞는 행동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현재의 우리의 모습에서 쉽게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외국 농산물을 수입에 편중되어도 우리가 마시는 차는 예외라는 생각이 온연하게 팽배해 있어 아무 거리낌 없이 커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리고 LIP 영화 축제 단체를 외면하면서, 자신이 출연한 커피 광고가 얼마나 많은 국산차 제배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는 깨닫지 못하는 모교출신의 영화배우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현재 인타가운 만의세는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사소하게 간파되어 버리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언어·사상에 있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외세 문화, 이제는 어느덧 우리의 일탈까지 바꾸어 버려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 것이 마치 문화적인 행동이며 문명인들의 보통 생활인 것처럼 간주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풍조를 완전히 고치는 것이 지금쯤은 어렵더라도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 뿐만 아니라 후배 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들에 대한 홍보도 자주 있어야겠다.
커피가 처음부터 우리 입맛에 맞았던 것이 아닌 것임이 틀림없다. 국산 차를 익숙하게 음미하도록 하는 계몽을 한다면 지금의 커피처럼 우를 잊을 것이다.
아직도 자판기에서 한두잔에 차가져서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다수의 학우들에게 의연하고 있는 국산차의 현실을 언제까지나 단파해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국산차 마시기」에 많은 학우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직접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싶다. 결국 이런 작은 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요즘 널리 진행되고 있는 「생활 문화운동」이라는 커다란 변화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정과·정정3 하우감)

대자보, 더이상 공해일 수 없습니다

80년대 대학가의 고유한 선전매체로써 대자보가 등장한 이후 대자보는 1백만 대학인 모두의 생활적인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는 대표적 매체로 자리잡았습니다. 외대에서도 역시 선전·알림하든 대자보라할 정도로 많은 양의 대자보가 매일 붙고, 떨어지거나 켜져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과 학생회나 소모임 단위의 자치 활동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대자보가 알릴 기능의 축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자보의 홍수」, 「선전물의 바다」를 이룬 공과판, 변변, 유리창의 실정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선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선전의 질적 수준을 외대인 모두가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해오다가 먼저 토론의 전을 알린다는 민중, 91년 3월 토론·학생회 대자보용지를 내놓기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외부에서 붙이는 선전물의 경우 즉시 철거하고 해당사업장에 전경하거나 법적인 제재조치를 가하라고 합니다. 학내에서도 역시 자기가 붙인 선전물을 자신이 철거

하는 풍조를 뿌리내려야 할것이며, 붙일 것을 한 선전물이나 스티커를 무단으로 부착할 경우에는 해당단체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전의 전형을 창조하기 위해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라는 구호 아래 지하매장은 선전물을 1백% 철거하고 일관성에 의해 붙은 선전물도 규제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단대상의 행사나 내전적 기의 대자보를 허용하되 나머지 알람은 4월이후의 용지를 사용했으면 합니다.

토론·향후의 대자보용지는 7천 학우의 경제활동에서 모인 복지 기금의 일부로 만들지 않~를 매일 일주일마다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학생회관 2층 왼쪽방)에서 행사장 10매씩 무료로 나누어 드림. 각 건물에 붙이는 것의 용지의 알람변환을 협의하여 합니다. 물론 일관성 규격(4월이후)을 지키지 않은 선전물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외대인 여러분의 참여속에 주어진 자재로 대학을 대학답게 바꾸어 나갑시다.

(이문종학생회 제25대 통일단결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독자 만평



무척... 덩지?
아... 우리...이제...선거늘이 하자

(법·법학2 이창규)

휴지통 하나 없는 왕산 진입로

모든 학사에 거주한 바 있던 남학생이다. 근대 문제로 인해 휴지를 하게 되어 작년에 모현학사에서 휴지통 하나를 가져와 모현에서 기숙사까지 걸어 올라가게 되었다. 한참을 걸어 가다가 나는 내심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것은 모현에서 모현학사에 이르는 구간이 휴지, 신문 조각, 파자 봉지 등 쓰레기가 군데군데 널려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모현에서 모현까지 가지는 구간이 아닌 모현에서 학생회관까지의 구간에도 걸쳐 있었다. 그런데 내가 한 번 더 내려가면 정은 모현에서 학생회관까지의 1.2km 사이에 휴지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사실 나도 친구들과 모현학사를 오르막 내려갈 거리를 걸을 때

거나 땅뽕지를 버린 적이 여러번 있었다. 물론 무의식적으로, 관습적으로 버렸던 적이 대다수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 바로 주변에 휴지통이 보였더라면 나는 내심판의 행동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왕산의 계절이 몇번 바뀌면 나도 다시 왕산에 서게 될 것이다. 기숙사에서 학생회관과 교양관, 어문학을 바쁘게 오가며 즐겨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친구들과 왕산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왕산이 다시 말을 걸게 될 것이다. 나는 모현에서 학사로 우울 올라가 볼 것이다. 내가 올라 가는 길에 어찌할까 물어볼 필요를 제 부르게 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란다.

(서학·이태리4 2 휴학·김희철)

답변란

지난 3월 12일자 559호 흡산의 소리 아랍어와 황준산군의 「이제는 둔갑해진 왕산 교통문제 해결되나」에 관한 답변

모현에서 학교까지의 버스비와 통근시간의 연장에 대하여 유인영 학생 인권복지위원장 김태민(문학·마인더)군은 「2주전에 모현에서 학교까지 가는 버스요금이 대학에서 회사를 면담을 요청했으나 담당자의 출장관계로 이번 주내에 담당자의 면담을 통해 확정된 사안을 대자보와 시킬 것」이라고 하며 「갈마리널 주변 교통정리 건설로 인한 등교시간의 연장은 지체될 버스」의 노

선 변경을 고려하는 등 여러방법을 모색,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주내 초·차비문제와 함께 대자보와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기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자 격: 매우 외대보통을 버릴 일이 없을 수 있는 사람
▲원서접수: 학생회관 2층 외대학 보 학생기자실
▲모집인원: ○○명
▲모집기간: 3월18(월)~31(일)
▲하는 일: 신문봉기와 취재동

명수당



최영수
(포트루갈어과 교수)

3월도 중순인데 매년 독설과 꽃병비발 때문인지 봄은 한 발짝 늦어져 오는 양 같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마음 속 어딘가 한변에 봄표지처럼 피어오르는 희망과 환희의 용솟음/ 이런 느낌은 비단 나 뿐만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강의실에서 첫 상편 신입생들의 영롱한 눈빛이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 봄편 말이다.

해결해야 할 일이 산재한 오늘날의 대학은 잠시 바쁘다. 미래를 걸머진 대학생들에게 거는 사회의 기대가 너무 큰 때문일까? 그래서 우리의 사사로이 행동 하나하나가 때로는 특출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이 사회적 현실에서 대학은 지고한 위치에 선 상임의 자제로만 머물 수는 없을 것 같다.

게다가 비록의 사회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학문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13세기 중세 대학은 기본 교과과 문법, 수사학(historia), 그리고 논리, 논리학(logic)의 3교과(trivium)에 한정되었다. 근대에도 지식의 기준은 읽기(reading) 쓰기(writing) 셈(arithmetic)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

게 변모하는 과학기술, 고도의 문명문화, 그리고 정보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오늘날 지식인의 요건은 컴퓨터의 기능을 포괄해서 비록의 것들이 총망라된다.
그러서 학생들은 배울 것도 익힐 것도 할 것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적인 지식의 축적을 위한 삶만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지식과 전공 분야의 연구안으로는 올바른 인간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 자신도 한 구성원인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다 다채롭게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신입생들에게 입학에서부터 졸업, 취업, 사랑, 그리고 결혼에 이르기까지 가나나 여정의 모습이 시작된다.

우리는 가끔 풍파한 역사의 타류 속에서도 상상을 초월한 모험으로 위대한 삶을 이룬 듯 영웅들을 알고 있다. 유럽이 마치 한 울타리내의 문화권인듯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1344백년대의 젊은이들은 남미대륙으로 뻗어 나가는 바다를 가도 놓여 어찌 버릴까는 태평양에 떠돌이 후손으로 변한다는 단순한 믿음에 존재했다. 이러한 시대에 신대륙 발견의 선구자가 되었던 항해자들에게서, 개혁의 깃발을 높이

고 세미라미 만도를 지평했던 시대에 아르메니아 코인브라(coimbra) 부근 어느 마을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아르메니아의 땅에 합가하며 깊은 산골로 숨었다. 아랍인들은 저항하는 이들 기독교도들을 소탕하고자 아슬아슬로 개종한 주민들 중의 한 사람인 에제라(Ezra)를 보냈다. 에제라는 마을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숲으로 찾아가 되었다. 「형제들아, 전쟁은 끝났다. 아랍인들과 우리는 평화 협정을 맺었다. 평화가 왔다구!」 그의 말을 의심치 않은 주민들은 빠져 나왔으나 모로로 붙잡혔다. 결국 그들은 노예로 팔리거나 최후까지 반항하다 죽음을 당하고 만다.

사라이바 교수는 여기서 세가지 유형의 인간을 통해 삶의 자세를 시사한다. 즉, 동족을 배신하고 이교도의 앞잡이가 되어 많은 상급과 특권을 향유했던 에제라가 유럽의 삶, 비록 기독교인으로서도 남다른 무어인들의 요구와 지시에 복종할 순종하여 그들과 공생했던 대다수 주민들이 취했던 유형인 삶, 그리고 최후가 되어서야 사라이바 교수로 전락한 모험적 삶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러한 삶은 자살을 어떤 인간행위로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세로 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싶은가

아이고 슬픈가?
나는 이제 막 인생의 모험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글이 담을 수조차 없는 것이다. 다만 진실이 채워지고 경이로움을 담은 이 현실에서도 초연하고 뜻뜻하게 자라는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인간행위에서 사회는 미래에 대한 한가닥 희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편이다.
죽을 앞에 설지 못하는 이들의 삶, 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삶의 자세인가?

무어(Moor)인들이 후기 우마이(Umayyad) 왕조를 설립한

지자체 선거에 출마하면 되지

자기 양심에 참마르고 기쁨
바른바다 개월 불어만 당선!
노노두를 언젠가 하는 역사
학도기!

지 자신부터 알아야 하걸함요.
씨어 한다(머리물...)
-BC-

무조건 먼저 알아야 한다. 고로
출마! 나! 아랍만! 코르도 당
선은 확실.
-중국어-

출마! 나! 아랍만! 코르도 당
선은 확실.
-중국어-

주제: 지자체에 당선 되려면
다들 주 주제는 「흡산의 소리」로
수고함입니다 미군 아저씨께, 입
니다

다들 주 주제는 「흡산의 소리」로
수고함입니다 미군 아저씨께, 입
니다

다들 주 주제는 「흡산의 소리」로
수고함입니다 미군 아저씨께, 입
니다

다들 주 주제는 「흡산의 소리」로
수고함입니다 미군 아저씨께, 입
니다

다들 주 주제는 「흡산의 소리」로
수고함입니다 미군 아저씨께, 입
니다

다들 주 주제는 「흡산의 소리」로
수고함입니다 미군 아저씨께, 입
니다

다들 주 주제는 「흡산의 소리」로
수고함입니다 미군 아저씨께, 입
니다

다들 주 주제는 「흡산의 소리」로
수고함입니다 미군 아저씨께, 입
니다

다들 주 주제는 「흡산의 소리」로
수고함입니다 미군 아저씨께, 입
니다

다들 주 주제는 「흡산의 소리」로
수고함입니다 미군 아저씨께, 입
니다

다들 주 주제는 「흡산의 소리」로
수고함입니다 미군 아저씨께, 입
니다

다들 주 주제는 「흡산의 소리」로
수고함입니다 미군 아저씨께, 입
니다

다들 주 주제는 「흡산의 소리」로
수고함입니다 미군 아저씨께, 입
니다

다들 주 주제는 「흡산의 소리」로
수고함입니다 미군 아저씨께, 입
니다

다들 주 주제는 「흡산의 소리」로
수고함입니다 미군 아저씨께, 입
니다

다들 주 주제는 「흡산의 소리」로
수고함입니다 미군 아저씨께, 입
니다

다들 주 주제는 「흡산의 소리」로
수고함입니다 미군 아저씨께, 입
니다

다들 주 주제는 「흡산의 소리」로
수고함입니다 미군 아저씨께, 입
니다

다들 주 주제는 「흡산의 소리」로
수고함입니다 미군 아저씨께, 입
니다

명약관화한 사실

명약관화한 사실

명약관화한 사실

독자 여러분.
학보기사에 펴며·향락문화를 비판하는 내용이 실리게 되고 기사란에 있는 광고란에 「명약」등의 선정적인 영화선전포스터가 실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보사기자들이 온 열정을 쏟아 제작한 신문은 바로 독자여러분들에 의해 휴지조각처럼 구겨져 버릴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광고는 지면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광고는 지면의 1/3로 대학 언론인이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학보지면속에 독자대중의 이해와 요구가 관철되어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광고에서도 독자대중의 이해와 요구가 관철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과거 대학신문에서 광고는 독자대중들의 이해와 요구보다는 오히려 광고주와 광고대행업체의 이해와 요구가 철저하게 관철되어 왔습니다. 대학의 이념에 맞는 도서·출판·문화·정보 내용보다는 비윤리적이고 퇴폐적인 광고가 횡행하면서 심지어 대학신문광고가 일부 악역 광고대행사의 이윤창출도구로 전락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에 전국대학신문기자들은 지난 89년부터 신문에서 광고는 지면의 1/3이며 더이상 악역 광고대행업체의 이윤창출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광고질서 바로잡기 운동을 힘차게 벌여왔고, 외대학보와 서강학보가 그 대열의 최선두에 서왔던 것입니다.

내각제의 디딤돌 지지제



92, 93년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지지제 통해 미국과 현정부
가 노리는 정치적 속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사진:한국일보)

지지제(이하 지지제) 기초의원 선거가 오는 28일 실시된다.

「롤루머민주당」, 「라노니」 지방분권과 시대의 개막, 아니 말도 많았던 지지제가 국민 모두에게 접할 만을 남긴채 정국적으로 실시된다는 것이다.

크게 보아선 미국의 식민지 지배 정책의 교묘한 면에서부터 92-93년의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미-노세끼의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리-통-음에서부터 시, 군, 구에 이르기까지

새와 더욱더 중요해지는 수비비리 문제와 유목주의의 지지제 분권선거를 명확히 보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지지제 분리선거의 검은 음모

전면적인 전술이 감돌던 절정전선이 전쟁광 부시의 승리로 일단락되었지만, 세계평화와 애호민중의 공동의 적으로 다 시한번 화를 낸 미국은 전후에

하지만 예상밖의 종전에 노태우정권은 계속해서 안정노선과 내부의 논리로 국민의 분출하는 수서구단을 장악할 수 있었으며 지지제 실시를 써먹기로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불안」의 벽」은 노태우정권에게도 존재하는 것이다.

「식민지 상황하에선 개방의 폭력적 전개」라는 말로 정리될 수 있겠는데 즉, 우리나라 상황에선 선거라는 정치행동은 어떻게 해서든 지주적인 민주의 흐름으로 되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또한 반대노태우 92-93년을 준비하고 있는 노태우정권에게도 큰 타격으로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태우정권은 또 한가지의 반민주적 정치일정을 결행하게 되었다. 바로 기초의원 선거를 먼저 치루고 이의 안정적 승리에 기반해 광역의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혀 버린 것이다.

때문에 좌급의 지지제선거는 인위적, 국민투표를 총동원한 정당선거가 민중의 민주주의적 정치권을 강행한 「전정선거」, 속에 무사기면서 수비비리의 밀봉을 노리는 노태우정권의 국민호도이며 정치적 조작극에 다름아니다.

사실상 민주당계 입후보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국

회의 역량탄산이 지지제 분리선거이다.

즉, 이를 기반으로 정권의 민권화라는 개방적 전술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관찰시키려 하는 것이다.

많은 군부파적 정치세력의 지주성을 분가가능하게 할 정도로 성장했고 또 신식민주의 지배를 띠면서도 군부독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자들의 전향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민중들의 역량탄산이 주동적인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군부독재를 개방적으로 추진하려는 하수인들을 통해 지방의회-구체적으로 광역의회-선거중에 개헌의도를 표현하거나, 선거후에 선거결과를 정치적 명분으로 내세워 내각제 개헌을 기도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의 근거는 국민들의 반군부파적 부정적파와 미국의 정권 민권화와 구도, 그리고 김영삼계와 군부파교의 현 처지를 볼 때, 김영삼계와 군부파교는 상호대립하면서 결국은 공방의 길을 취할 수 밖에 없다.

양측의 역관계는 개헌구도에 직접적으로 투영될 것이다. 군부파교가 우세하게 되면 군부파교에 유리한 이원집행제가 모색될 것이고, 김영삼계가 우세하면 김영삼계에 유리한 이원집행제가 모색되거나

소비생활편의, 경제중속 심화

편의점, 미국인 편의성·국내시장 개방 산물 국민의식 서구화, 유통시장 대미종속 우려

심야영입 단속이후에도 불
아름을 이루는 것이 있다. 간
단에 새겨진 영이가 유달리
밝고 어색한 곳, 하지만 문을
연 것이 없으니 일단은 한번
찾게 되는 곳이 바로 편의점
이다. 연중무휴로 24시간 열
어있는 편의점은 호기심이 발동
하는 곳이기도 하다.

편의점이 국내에 들어
오게 된 배경

CVS라고 불리는 편의점
(Convenience store)은 미국의
편의점의 창시자로서 높은
중량 소매업의 혁신적인 힘
으로 아파로 밀집지역이나 사람
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
소에서 장시간 영업함으로써
자주 생활 물품을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상
점 판매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편의점 형태의 소
매업이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
한 것은 롯데쇼핑이 1982년
말 삼정 약수동에 롯데세븐
십점을 개설한 것이 시초로 그
때 당시 뉴욕이 쇼핑이 함께
해 서울 각 지역에 8개점도의
편의점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하지만 국민 소득 수준이나
나뉘어진 유통 구조 등으로 인
해 파다한 시설비 투자에 비
해 매출에는 한계를 드러냈고
구멍가게나 슈퍼, 연세점
의 상당수가 시간 개념이 없
고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영업시간이나 고용 측면에서 불
리한 점이 누적이기 시작하면
서 문을 닫게 되었다.

그후 80년대 들어 소득 수
준 향상과 아울러 생활 패턴
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대
형 아파트 단지형, 허가조
형의 다른 방식이 부부의 중
가-편의점 형태의 소매업은
유망한 유통형태로써 해외 대
유통업체들의 주목을 받게 되
었고, 수년전부터 국내 시장
에 선보일 기회를 보다가 국
내 대기업들과 손을 잡고 들
어 오게 되었다.

1991년 현재 40여개에
달하는 해외합작 편의
점

서울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
는 편의점의 종류에는 두가지
가 있다. 첫째는 국내 대
기업들이 자사 상품을 효율적
으로 판매하기 위해 개정한 형
태의 편의점이고, 둘째는
편의점 형태의 유통업으로
영입된 돈을 벌이려고 있는
해외의 대기업과 국내 대
기업과의 기술 제휴 형태로

매년 순 매출액의 1~1.5%를
로열티로 지불해야 하는 편의
점을 들 수 있다.
국내 자본에 의한 편의점은
미도와 편의점의 「스파
(SPAR)」가 6%, 락키점
(LG 25)가 2%, 매일점의
「리브 M」이 4개로 총 12개의
편의점이 개설되어 있고, 해
외 합작 편의점은 미국 사우스
랜드사와 동화산업이 손을
잡은 「새날 일레븐」이 12개,
미국 씨클 케이와 한양유통의
「씨클 K」가 7개, 미국 다이
리 마트와 사니 그룹의 「로슨」

있는 것을 보면 국내 고객들
에게 편의점을 선호하는 경향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
지만 단지 편리하다고 해서
언제까지 대량적으로 이용만
할 것인가.

편의점, 무엇이 문제인
가

경쟁 노후와 상품 재고
관리 지도를 받는 명목으로
매년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는
파다한 시설 투자와 비싼 임
대료,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
해 계속되는 적자를 가져왔고

유통업계를 쉽게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
들의 입장에서 언젠가는 유통
망 전반을 장악하고 양대배
를 비롯한 수입품을 원하는 대로
판매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
하게 될 것이다.

편하다고 마냥 찾을
것인가

91년 1월 상공부에서 발표
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달까
지 유통산업 개방 계획을 마
련, 도-소매업의 외국인 투
자 제한 계획을 완화해 나가



시장개방압력은 외국유통기업의 급속한 침투와 함께 국민의식의 서구화를 부추기고 있다.

(Lawson's)가 9개로 미국 기
업과 기술제휴한 편의점은 45
개에 이르고 있어, 미국내의
3대 유통업체들의 대리점까지
이웃과도 있다. 또한, 일본의 이
은 그룹과 미친 그룹이 손을
잡은 「미니 스톱(Mini Stop)」
3개, 보령그룹과 일본 세이마
제프의 「해비리 마트
(Family Mart)」가 7개로 일본
기업의 한국진출도 거세 볼까
하다.

구멍가게가 없는 아파트 단
지나 국내 최대의 상권을 지
향하는 강남지역을 그 인지로
상속하고 24시간 영업에 연
중무휴라는 시간적인 장점과,
고급 의제상품과 국내에서 판
매되는 각종 생활 필수품을
비롯해 라디오, 대어, 서적 등
대, 문화정보 서비스, 현금 인
출기, 커피 등의 온갖가지 구
색까지 갖춘 3대 장점을 자랑
하는 편의점은 맞벌이 부부,
독신자, 수험생 등 비교 구대
보다는 복귀 구대 성향이 강
한 고객층을 겨냥하여 제 말
은 바 책임을 다하는 듯하다.
그리고 하루에 1천~1천5백명
정도의 소비자와 2백50에서 3
백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이러한 정도의 가맹점을 보유하
여 로열티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 해외 합작을 벌여 온 기
업들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
다.

또한 93년 유통시장개방을
앞두고 90년 8월부터 파다한
로열티를 요구해 문제를 더 아
와시키고 대진 기술제휴를 통
해 적당부자를 희망하고 나섰
다. 더불어 국내 업체들의 기
술제휴 과당경쟁이 불러 온 문
제들로 인해 각계에서는 외국
유통 유통업체의 체인점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
아지고, 대기업이 구멍가게와
같은 산대상권에 들어올 쟁
기기 위해 침투, 경세업자들의
생계위협이 큰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편의
점의 생김이후 바로 옆에 위치
한 분구점의 경우는 월 15만
원 정도인 수입이 반으로 줄
어 건전 임대료 조차 낼 수 없
는 실정이라 한다.

또한, 유통업체까지 미국의
판매 형태를 흉내내 국민의식
을 혼란중에 사투와 시키고
고급 의제상품을 비롯한 공공
연한 수입품 판매 행위는 자
본과 기술력을 가지고 국내

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강
은 계획은 유통산업 부분 외
국인 투자 제한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의 주요인으로 작용
하기 때문이라 한다. 그렇다
면 시급히 외국인 투자 제한
조치를 완화시켜야겠다고 발표
한 이유는 무엇인가. LRI협
정이 체결된 후 미국은 양구 협
상으로 급진화하기 시작했고
89년부터 그 단초를 마련해
온 유통기업의 기술 합작은
서비스, 지식산업 개방화의
일환으로 봐도 무관할 것이
다.

편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현대인에게 편
의점은 유통망을 장악한 뒤의
미국자본의 본질을 가리키는
은 아주 충분한 기원이 되고
있다.

우리는 다시한번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단지 이름을 빌려
온 댓가로 지불하는 1%의 로
열티는 작은 수치로 생각될 수
도 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
는 국내 유통시장 모두를 미국
의 손아귀에 넣여주는 결과로
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김유경 기자)

미국, 정권 민간인화 전술로 안정지배 관철 지자체 통해 민중역량탄산후 내각제 개헌

인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정치
적 속셈을 유바르게 꿰뚫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구나 6월경에 걸쳐 진행
된 비리의 결정판 「수서비리」
가 아슬아슬한 상황이기보다는
속으로 씹여들어가 결국에는
뚝이탈될 지경에 이르는 지경
상황에 지자체를 분리하여 지
구에 실시하겠다는 것은 어디
로 보나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
게 하는 부분이다.

지자체선거는 멀리보아 87년
6월항쟁이후 강화된 민중의 정
치역량을 확인하고 자주적인
민중투쟁의 힘으로 정권해변
「투쟁의 산물」이며 결정적인
승리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민
중투쟁의 결과이었음에 분명하
다.

하지만 이러한 승리의 의미
가 독재의 모태성으로 되돌아
가려는 가능성조차 엿보이는 것
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에 우리 민중민주주의력이
지자체에 대해 전제해야 할 자

도 그같은 표현적 성격을 변
환없이 틈스피리트 혼란이라는
「선제혁명적 연설」을 통해 한
반면에 이식시켜놓고 있다.

해 틈스피리트 혼란의 존재
를 여기에서 부각시켜내는 것
하면 지금 지자체정국의 막강
한 분위기와 민주주의 확인의
장이 찬바람부는 부패와 타락
의 정치난장판으로 뒤바뀐 것
과 이 전정후론이 전의 무관하
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다.

지자체선거까지 절점전정이
계속 시간을 벌면서 끌여주는 것
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지
만 전정은 미국의 진언에 대
한 무수한 살상과 파괴를 통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종전되어
지 되었다.

전쟁을 통해 많은 부가적
이익을 따냈지만 가장 중요
하게는 수서비리 문제초조의
안전관으로서 절점전정이 차
용한 것에 노태우정권은 무엇보다
큰 기쁨을 느꼈을 것이다.

민의 규탄대회를 정치행동을
완벽하게 가깝게 차단하고 있으
며 「수서비리」등 부정행위를
통해 조성된 선거자금들 통해
선거의 주인이 되어야 할 대다
수의 국민은 「짜다놓은 보리자
수」로, 「돈놓음의 하수구」로
되고 있는 현실들은 이를 단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의도속에 담긴
미국의 의도와 내각제
개헌음모

미국은 남한민중의 현재적
요구수준이 군부독재의 현 제
제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에 도달한 현실을 간파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현실을 알고있
는 미국은 자신들의 지배영향
력을 온존시키기 위하여 개입,
지배역량의 변경을 적극 실행
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지자체
의 분리선거에 숨겨진 광역의
회, 참선, 대선에 이르는 민중

또는 현재의 대통령제가 유지
될 것이다.

새력이 평행하면 평행한 역
관계가 반영된 내각제가 모색
될 것이다.

지자체선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숨겨진 논리와 정책의
싸움이 아니라 공개된 대중투
쟁임을 다시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다.

92-93년은 뜬구름 잡기식의
정치적 대안이 아님은 분명하
다.

민중의 자주적 흐름에 기반
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일
단결된 대중투쟁만이 힘있는
투쟁을 예견하고 광범위한 대
규모를 반노-반민주정권전선
으로 인입시켜 낼 수 있는 것
을 주체 하나하나의 정치적 생
명관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행
정적 요구하고 있다.

박 종 진
(인문·철학4)

외대학보 광고 이야기—여섯번째

우리는 왜 내려기획과 광고 대행제약을 하려 하는가?

우리 신문의 1/3을 맡게될 광고대행사.
이 광고대행사를 선정하는 문제는 바로 우
리의 양심을 대신할 믿을 수 있는 동지를 구
하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토론과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
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내려기획만이 우리의 양심을 대신할 수 있다」

하나. 내려기획은 「대학신문에서 광고의 지
위와 역할」에 가장 충실한 광고대행
사입니다. 대학신문의 1/3을 대학신
문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바로 잡는
일, 그리하여 독자에게 되돌려 주는
일은 오직 내려기획만이 추구하고 있
습니다.

둘. 광고질서바로잡기운동의 모든 성과는
나래기획의 출발과 함께 내려기획의
발견을만큼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대
광고추방, 독자참여, 합리적인 매체
로 선정 등의 모든 성과는 내려기획
과 더불어 만든 대학신문의 공동노력
입니다.

셋. 내려기획만이 자본의 경쟁에서 상업화
되는 대학신문 광고면의 건강성을 지
켜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경쟁에 의한 공개입찰의 허구성을
건강하고 대학신문의 건강성을 지키
려는 내려기획의 피어린 투쟁은 우리
모두를 감탄시키고 있습니다.

넷. 내려기획만이 진정한 대학신문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전국대학신문사전자자신측 전국 대
학신문 편집학교 등을 통해 대학신문
발전을 위해 모 지원을 아끼지 않
았습니다.

나래기획만이 우리의 광고원칙을 지키고
대학신문의 건강성을 지켜줄 수 있는 대행사
입니다. 우리는 내려기획에게만이 우리의 신
문, 우리의 양심을 맡길 수 있습니다

■외대학보 전체 기사 일동

문화평

◆「집단창작」의 대중성에 대하여

문학의 열린 공간-집단창작

80년대 급변하는 정치·사회
현실에 민중들의 비탄주
에 대한 투쟁의지는 급속히
양기되고, 이는 문화예술계
도 적잖이 영향을 끼쳐 문
예술운동 전반에 걸쳐 커다
라 파장을 그림어 양적·질적
변화의 계기가 된다. 이러한
대변적 조건은 이천에 소
진과 이대동거자들의 부패에
1987년대 투쟁기를 지하는
정국에서 '운동의 대중화'
필연적이었으며 이와 다름
문화예술운동 또한 문화에
의 근본적 역할을 제정하
는 문화예술운동의 '대중
성'을 선언하고 나선다. 이는
창작,을 기본으로 하는 문화

세 작품으로 내는 것이라든가, 그러나 문학이 독자대중을 인식요양식까지 더불어 끌 수 있는 주제를 일컬어 세우는 조는 직동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때 앞서 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문학으로 "장작과 개간의 문학"이 지니는 한계성은 명백해진다. 그렇다면 문학의 대중화면 무엇인가?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첫째, 장작작품의 내용이 생활상의 구체적 모습을 형상화하며 전철을 장황함으로 독자대중의 의식을 교양시키는 것이며 둘째, 자본주의 사회구조아래서 행해지는 창작자로서 특산물 몇몇 개

개인이 조직의 지향점을 창작
에 그대로 반영하는 점에서
나타난다.

『집단창작』은 한마디로 말
해 “끌끌기의 열린공간”이라
고 할 수 있다. 일단 한 조직
내에서 각 부문별로 시분과
소설분과 등으로 나뉘면서
각 주제를 내외고 되고 어
기서 개별적인 역량 가지(시
창작의 경험, 의식수준)들을
서로 보완하는 것이다.

이 속에서 개인들의 역량이
총화로 모이므로 창작과 경험
둘째 서로의 역량이 많이 발
진되게 됨을 느끼게 된다.

『집단창작』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장점은 서로의 경험을

성공을 의미한 경로를 통해
정해아 하는데, 대중화시키기
위한 현실적 조건에 대한 논
의는 아직까지도 미비한 상
태이다. 이는 이후 논의과정
에서 실현에 이르기까지 조직
으로 이뤄져야 할 것은 너
무 당연하다.

앞서도 밝혔듯이 최근
문학운동조직 그리고 대하
다(구체적으로 문학동아리
단대 문학파와 문학소모임
류) 많은 집단창작품을 소
고 있다.

본고의 경우 용인캠퍼스
학동이라 「사월문학반」이 「
국과 청년」이라는 서사시
는 바 있다.

1. **문헌 고찰**의 명칭과 내용 양
 면에 걸쳐 정경각의 논의의
 내용은 최근에 그에 따른 장
 2. **문헌 고찰**의 명칭과 내용 양
 면에 걸쳐 정경각의 논의의
 내용은 최근에 그에 따른 장

풍부한 창대

인들이 「글쓰기의 목적」이 아닌 많은 독자들에게 주제적으로 창작에 대응하도록 하는 「글쓰기」의 대항호라는 공간(형식)을 열어 놓는다.

조직창작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자면 조직창작이란 개인이 창작의 결과물을 습득하는 사적(私的) 창작과 달리 몇몇 한 학점을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창작활동을 비롯 그 결과물까지도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다. 조직창작은 집단 창작과 개인창작으로 나뉘는데, 개인창작과 사적 창작과의 차별성은 개인창작 창작의

작화활동을 통한 문화의 내용

채워내야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용
있어 장편서사시와 행시때
이는 시들로도 학부들의 생
계 세세한 부분과 형상과
통해 집단창작의 대중성을
차게 표현대기엔 부족하
하지만 문학운동조직 추
목해점을 인식하고 있음이
분해하러는 움직임들이 나
대 한 시기에 문학의 대중
대한 실험도 있는의과적,
중심을 이루기 위한 여러
한 의 조성을 예술적 형상과
관련 진상은 밝다고 할 수
있다.

(문학부

**풍부한 창작활동을 통해
대중화의 내용 채워내야**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 ⑱



「월요일-2시간/화요일-2시간/수요일-6시간/목요일-4시간/금요일-6시간」 이게 뭐냐구요? 요일마다 들어야 하는 수업시간? 아니요. 이젠 요일마다 생겨나는 「공강」시간이에요.

『○○야, 너 당구 칠 줄 아냐?』
『아니요, 저 그런거 칠 줄 몰라요』
『바보같이, 자 나랑 같이 당구장 안갈래? 기본 30점봉
고 치면 돼. 하얀공으로 빨간공 2개 맞추는 걸 딱 세번만
하면 돼』

그뿐만줄 아세요? 제 여자 동기한명은 선배따라 오락실에 갔다가 「테트리스」가 너무너무 재밌었다며 오늘도 「테트리스」하러 오락실로 출장 나갔답니다.

선배님 / 당구도 좋고 오락도 좋지만 저희와 같이 사느
애기도 하고 좋은 책도 권해주시며 열람실에서 함께 공부
도 하고...그러면 어떨까요?
오늘 선배님 주위에 저처럼 이렇게 학업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세대기들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문화부〉

4

〈문화부〉

〈학내 생활문화운동취재〉

인식 변화 시급한 외대내 생활문화운동

인간가 신문과잡지에서 대하이
학파와 피폐문파의 정으로 변
해가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 있
었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후
리다. 소스와 주변을 살펴 보
자. 우리문파라고 자칭짓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
로 서구문파에 섞여 있음은 알
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악한가? 파장이 있다고 해도 대
학문파의 서구화·피폐화를 완
전히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들을 문
제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
가장 진전하고 민족적이며 문
화대문화를 낳고 의욕을 불
어 깨우고, 자본의 논리에 쫓
아 소비적으로 이기적으로 변
해가고 있다.

할 것이다. 몇장의 교판까지
함께 계사가 되어 많은 학우
의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그 효과에 있어 중
적인 달을 할 수 없는 것
이므로 공강시간에는 저술
오락실이 다 당구장·극장은
는 학생들의 기기에 대해
인 문제의식도 갖지 못하고
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대해 학생생활회와 선
문화부장을 맡고 있는 안
(중앙 미디어경제)장은
에게 미디어경제에 대해
조사를 하여 의견을 수렴
가능하더라 미디어경제는
다섯으로 옮기도록 요청
를 거듭하니라하며 적극적인
을 범했다.

을 위해 학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조부에서 사건 검사과정을 하는 등의 몇가지 계획을 갖고 있다.

해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서울특별시에서의 생활환경은 일반적인 선진국에 견줄까? 지속적으로 묻는 것이 있었다.

한편, 유엔세계도시망은 대략적으로 20조(이하 생략)을 중심으로 생활환경이 평가된다고 왔다. 제천이나 대동제기간에 리우 입기 "우리라 미국의 자질을 마련하였다. 우리-고전으로 현대화시킨 옷-경우 가격이 다른 비싸 큰

메하고 있다. 공동구매에서 도란한 공책에는 사 판대하는 공책표지에는 하는 영이대신 우리말이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담은 그림이 그려져있다. 가 늘상 사용하는 공책의 부분에서부터의 대문화



위험에
시중에
남발
쓰여
모습을
우리
작은
배려

계획입니다.라고 말한
들에게 우리 옷의 편의
시키고, 궁지를 가지
싶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지난해 모현에
지 '승용차 할매타
벌였으나, 민 승용차
타고 올라가는 많은

탄한 토대 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
어왔다. 또한 주도의
는 몇몇 단체들에
독자적으로 사업이
돼 온 실정이다.

생활문화운동은
또한 거버이 생각하
는 단면이 아니다.

활동문화운동하면 열
한—무엇인지 안아
들—음을 생각하기
는 쉽지않아말로 이
점을 파악하지 못한
회이다. 한다. 왜냐
하오나 자본의 논리
의 의식을 바로
해서 만하면 다른
사람을 건설하는

바로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대학내 생활문화운동은 출발하였고, 외대에서도 생활문화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캠퍼스 학생들은 지난해 학생회관앞 게시판에 「미디어극장을 가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던 것을 기억

서울캠퍼스에서 비교적 실
적으로 생활문화운동을 해
곳은 인민복지위원회를 들
있는데 「외대사람 순찰대
조직하여 학원내 폭력과 소
피메문화 척결에 일조를 했
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자
은 올바른 대자보 문화의 장

용을 얻진 못했지만, 우리
을 학우들에게 소개하고,
차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활 협동조합
공동구매위원회가 있어
대학교와 연계사업으로
도안한 종이컵이나 공책을

해 나가고자하는 노력이
있다.

조합장 소삼재(서학·
이어4)군은 『앞으로는
외래어 표기도 그 심각성
필과 동시에 없애 나갈
며, 가능하다면 우리 교
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외면으로 별 실효를
했다고 한다. 이는
학인들에게 이기적인
인 요소가 존재하고
해준다고 할 수 있을
양캠퍼스에서 생활
이 내용과 정도의 차
고 있지만, 아직 어느

화운동의 목표이기
이런 생활문화운동
올바로 인식하고 주
에서 외래문화·행
서히 물어내기 위하
먹이는 선진과 학
적 의의가 절실히
다. **〈한**

〈형

외대학보 제2기
모니터 요원 모집

의대학보는 항상 의대인 집에서 살아 숨쉬는
신분이 되기 위해 독자들에게 편집인과의 연결
고리가 되기 위해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은 독자의 시각에서 학보를 체계적으로
비판함으로써 학보 발전의 한쪽 어깨가 되고, 준기자
로서 기사 소재를 발굴, 제공하고 기자와 함께 취재하며
기사를 쓰기도 합니다.

△자격: 언론매체에 관심이 있는 의대인, 기자가 되고
싶었으나 기회가 놓친 의대인, 좋은 학보 만들기에
동참하고 싶은 의대인,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는 의대인.

△신청: 교무 및 접수: 학생회관 2층의대학보
학성 기사실

△모집 인원: 학년 제한 없이 ○○○
△모집 기간: 3월18일(월)
~31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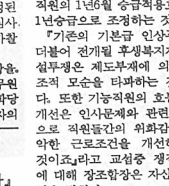
다시 찾는 새 삶

3484

3486

서울, 서울역 종로에서 8천명 가두투쟁
윤인, 14일 결의대회 지자제 조기선거 음모폭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
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
고 볼 수 있다.



장조합장은 노동자의 인
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상부쟁은 모든 조합원들
합수행을 성실히 할데
성을 더욱 확보할 수
특목구협상과 임금인상
빨리 끝나 건강한 노조
전개하고 싶으며 이후의
를 말한다.

「태화강국이」 등특구과
협약을 관련되면서 임금
조인도 인건비 상승을

『대학당국이 등록금과
협약을 관련지면서 임금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상용하는 교섭투쟁을 계
개할 것입니다』
〈신승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

그 아세 영

받은 자

민중전선의 구심으로 단결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
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
고 볼 수 있다.

빨리 끝나 건강한 노조로
전개하고 싶다면 이후의
를 말한다.

『대학당국이 등록금과
협약을 관련지면서 임금
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고 소정의 시약서를 제출한다.
 을 담당한다.
 의 재량으로 도중 귀국 시킨다.

위립대학교 하계 영어연수에 관한 안내

- ## 선발절차:
- 1차: 소속 학과장 및 지도교수 면접 후 추천(지원서만 기)
 - 2차: 면접(추후 개별 홍보)
- ## 학점 인정
- ### 1) 인정과목 및 학점
- 위락대학에 소정과목 이수후 취득한 영어성적은 본 대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교양선택, 제2영어, 교양 영어 또는 자유선택교과목 이수점수로 대체 인정한다.
 - 인정학점은 최대 3명목으로 한다.
 - 대체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성적표상에 “해외 연수영어”로 성적이 등재된다.
 - 대체 성적불합기나 출석 미달로 성적이 안나왔을 경우에도 성적표상에 “F”로 등재된다.
- ### 2) 인정시기 및 수검신청
- 학점은 1991학년도 제1학기에 인정한다.
 - 학기회 최대 수검신청 학기에서 연수 학점을 낸 나머지 학점 범위내에서 수검신청 하셔야 한다. 단, 수검신청시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 학점인정 절차
- 본교에서의 학점인정및 성적부여는 위락대학에서 평가한 연수학생의 성적및 등급에 대한 본교 “학점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이에 대한 총장의 승인에 의한다.
- ## 3. 기타사항
- 최종 선발된 학생은 학생처에서 시행하는 8시간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입학식을 제출한다.
 - 최종 선발된 학생에 대한 이민 및 가맹국에서는 학생처에서 일괄 담당한다.
 - 영구권을 발급할 수 있는 자격지니하고 판단되는 학생은 인출액자의 재량으로 도중 귀국 시킨다.
- ### 영국 위락대 Reth교수 내한 설명회 개최
- 일시: 1991. 3. 27(수) 14:00~15:30
장소: 시청각 210호

깨달음의 하루, 변화의 나날...

3월2일 날씨 쾌청

신입생 수련회를 다녀온 지금 이시간은 뒷모습을 마치고 모두 흩어진 새벽 3시, 우리와 파랑에서 다음 속에 흐르는 상념들을 몇자 끄적여 본다. 이미 콘트라가 되어 세근해간 잠자는 무지무지 사랑스럽고 귀여운 내 동기를 위한 코고는 소리들을 배경 음악으로 들으며

3년간의 짧은 방황과 1년간의 길고 고독했던 제수기간 이후에 처음 가져온 공동체의 시간이었다. 외한 반자로서의 내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을 다시금 느끼게 해 주었다. 신입생 수련회였다. 가는 차안에서 부딪히 5시간동안 신배를 타고 배를 탄중으로 30여명(?)의 파노라마, 파노라마, 그리고 강당에서 진행된 정발에서 준비한 모습들이 역력히 보였던 유익한 프로그램들... 신배내부의 술자들이 역력히 보였던 유익한 프로그램들... 신배내부의 술자들이 역력히 보였던 유익한 프로그램들...



무척 밝았었다. 지금 파랑의 열려진 창문밖으로 다정한 달빛과 함께 스며오는 새벽의 시원한 공기는 정말 상쾌하다. 내가 지금 서있는 이곳 우리 학교, 나의 앞으로의 4년동안의 화려한 날들이 적고 귀여운 꽃망울을 피울 줄 모르는 화분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

3월8일 (대학1년생으로서의 5월말...)
F3306강의실이 어디더라?
F4/ 강풍이 대제 어느 구석에 붙어 있는가?
이리저리 우왕좌왕한다. 성별, 지역, 나이, 전·후기의 모든 정보를 거침없이 뛰어 넘은 우리와 동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친숙해졌지만, 신배내부와 교수님을 대하는 여전히 어렵다.

매칠전 다리를 뼈에 찔러 리며 가니는 교정은 온통 벚꽃과 신전의 향수이다. 무수한 동아리모임, 동문회모임 / 그리고 다양한 소·대자료를, 반미 구호를 외치는 대자보 위에

떨어져 뛰구는 빈 양털매달... 정말 나혼자 찔러먹는건지, 대학이 원래 찔러먹는 곳인지 난 아직 잘 모르겠다. '배'와 '교정'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오늘도 다리를 질며 하루를 걷는다.

3월16일 날씨 흐린뒤 맑아졌다. 첫정월이라는 날이 어울리지 않는 날이었다. 오늘 첫정월을 했다. 그동안 TV화면과 신문 활자로만 보고 들어 오던 가루라는 것에 참여하게 되었다. 물론 신배의 강요도 개입되지 않고, 어떤 선동도 의해 나갔던 것도 아니었다. 대학생이 된 이상 좀 더 많은 책임을 통해 직접 보고, 내 눈으로, 내 발로 직접 다 보려고 싶었다 때문에 나 스스로가 결정하고 동참해 본 것이었다.

신배의 옆으로 훑어 다니며 집결한 곳은 서울역과 남대문 사이의 대로는 가는 도중 저하철역 앞에 푸리지가 서있는 전경들이 오늘날은 편지 약간은 두

려움의 존재로 느껴지는 것이 이상했다. 남대문 앞에는 이미 수련회 명의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시위의 주제는 수서비리 규탄이었고 연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들 목청껏 구호를 외쳤다. 조금은 날카롭게까지 들렸던 구호도 있었지만 그 역시 공감은 갔다. 중학교 동창이었던 여자들이 대열 중에서 만나게 되었다. 5년간의 만났던지는 별다른 만남이 있었지만 서로 말없이 막수 한발하고 다시 흩어지고 말았다. '눈빛 한번 마주쳐도 배'가 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각 대학에서 모인 수련회 대오속의 '나', '단결'임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꼈다.

그때였다. 타당할거리는 소리와 함께 밀려오는 전경, 그리고 장막... 제각기 말로만 들던 제각기 아닌 큰 물결의 이동에 의한 어떤 수 없는 움직임이라고나 할까? 대오는 서울역 쪽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정시!' '정시!' '정시!'의 구호를 외쳤다.

취부만 남세를 이렇게 가가이 느낀 것만 처음이었다. 열은 눈을 벌이게 되고 숨이 거칠어 피로했다. 지달만이 터지고 화염이 날아 오른다. 가도에서 멀찍이 지켜보며 이렇게 짧은 순간의 기도를 마음

신입생 일기

속으로 드렸다. '제발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전경도 학생도, 그리고 이런 광경일랑은 제발 우리 세대에서만 끝나기를...'

2차의 동태로 시장에서의 평화행진도 사실상 원형복합되다 시피 끝나 버리고 곳곳에서 산발적인 행동과 구호소리만 들리고 있었다. 노점상 아저씨께 피충한 마음을 가지며 물건들을 생겨 주었다. 아저씨는 장사 망친대 대한 욕은커녕 오히려 격려해 주셨다. 정말 고맙다.

타당차에 개처럼 끌려가는 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기만하마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주먹만 붙든 커머 분함을 참지 못했던 나 자신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미워 보이는지 모르겠다. 허탈감을 가슴에 안고 학교에 돌아 오며 대학생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보았다.

전공부도 중요하고 인격면에서도 중요하고 물론 사회 참여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이라도 편협한 시각으로 해 나가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된다. 남의 선동에, 혹은 오도된 몇몇의 서적에 의해가 아닌 진정한 자신의 욕망을 통해 가슴속 깊이 흔들리지 않을 스스로의 확고한 「관」을 만들어 나가는 생활이 중요하다.

전대영
(사범·한국2)



"새(전경)가 지나간 자리"

—지난 16일(토) '수서비리' 규탄 집회,에서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서울의 안까지 들이 닦진 전경에게 떠밀려 넘어진 할머니—

(주재명 기자)



문화응답

철강지대

—정화진 지음

현시대를 어렵게, 그렇지만 강하게 살아간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린 노동정권소설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도시빈민·노동자·학생들이 동맹하며, 이들이 자신들에게 의지한 억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하는 모습이 형상화되고 있다. 이 땅 민중들의 강렬한

해방의지를 전하는 책이다.

(홍익퍼블리싱 김4천5백원)

일하며 일어서며

—신보연 지음

사건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보여주는 책이다. 노동의 현장에서, 파업의 함성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노동자들의 노력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이 책은 노동자들이 의의 할아아 할 과학의 이론을 간단한 글로 읽고 있으며, 생동감이 잘 나타나는 사건이 함께 실려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림퍼블리싱 김3천원)

출동 / 오늘의 현장

—박종만의 지음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웃을 위한 방송」을 주장하던 평화

방송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오늘의 평화방송 사태를 낳았다.

출동 / 오늘의 현장

—이재현 지음

이 책은 평화방송의 보도·편집프로그램 「출동 / 오늘의 현장」과 「PBC뉴스쇼」의 내용을 뽑아 실은 것이다. 평화방송의 보도·편집프로그램이 어떠한 기조하에 제작·보도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며, 평화방송사태의 본질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실천문화사 김4천원)

봄비 내리는 날에는...

—김기현 지음

며칠 전에는 봄을 알리는 비가 내렸습니다. 개강한 지 벌써 2주가 지났고, 비와 함께 봄도 한층 가까이 다가온 느낌입니다.

봄비 내리는 날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기

나를 친구를 찾고 있던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이

아기를 담아 줄 열린 공

감옥 안락을 넘나드는 공간의

현황과 한 이 연극은 장기를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단이 낳은 가족사적·민족사적

의 당위성을 느끼게 해준다.

▲연장료:4천원

▲연락처:문화예술평화

단 「아리랑」(645-2779)

극단 「아리랑」은 「아버지의

4월1일(월)까지 예술극장 한

이 연극은 딸이 남북공작원이

과정에서 이 사회의 현실을

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나서는

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광범위

각국 안락을 넘나드는 공간의

현황과 한 이 연극은 장기를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단이 낳은 가족사적·민족사적

의 당위성을 느끼게 해준다.

▲연장료:4천원

▲연락처:문화예술평화

단 「아리랑」(645-2779)

극단 「아리랑」은 「아버지의

4월1일(월)까지 예술극장 한

이 연극은 딸이 남북공작원이

과정에서 이 사회의 현실을

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나서는

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광범위

각국 안락을 넘나드는 공간의

현황과 한 이 연극은 장기를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단이 낳은 가족사적·민족사적

의 당위성을 느끼게 해준다.

▲연장료:4천원

▲연락처:문화예술평화

단 「아리랑」(645-2779)

극단 「아리랑」은 「아버지의

4월1일(월)까지 예술극장 한

이 연극은 딸이 남북공작원이

과정에서 이 사회의 현실을

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나서는

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광범위

각국 안락을 넘나드는 공간의

현황과 한 이 연극은 장기를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단이 낳은 가족사적·민족사적

의 당위성을 느끼게 해준다.

▲연장료:4천원

▲연락처:문화예술평화

단 「아리랑」(645-2779)

극단 「아리랑」은 「아버지의

4월1일(월)까지 예술극장 한

이 연극은 딸이 남북공작원이

과정에서 이 사회의 현실을

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나서는

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광범위

각국 안락을 넘나드는 공간의

현황과 한 이 연극은 장기를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단이 낳은 가족사적·민족사적

의 당위성을 느끼게 해준다.

▲연장료:4천원

▲연락처:문화예술평화

단 「아리랑」(645-2779)

극단 「아리랑」은 「아버지의

4월1일(월)까지 예술극장 한

이 연극은 딸이 남북공작원이

과정에서 이 사회의 현실을

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나서는

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광범위

각국 안락을 넘나드는 공간의

현황과 한 이 연극은 장기를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단이 낳은 가족사적·민족사적

의 당위성을 느끼게 해준다.

▲연장료:4천원

▲연락처:문화예술평화

단 「아리랑」(645-2779)

극단 「아리랑」은 「아버지의

4월1일(월)까지 예술극장 한

이 연극은 딸이 남북공작원이

과정에서 이 사회의 현실을

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나서는

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광범위

각국 안락을 넘나드는 공간의

현황과 한 이 연극은 장기를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단이 낳은 가족사적·민족사적

의 당위성을 느끼게 해준다.

▲연장료:4천원

▲연락처:문화예술평화

단 「아리랑」(645-2779)

극단 「아리랑」은 「아버지의

4월1일(월)까지 예술극장 한

이 연극은 딸이 남북공작원이

과정에서 이 사회의 현실을

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나서는

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광범위

각국 안락을 넘나드는 공간의

현황과 한 이 연극은 장기를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단이 낳은 가족사적·민족사적

의 당위성을 느끼게 해준다.

▲연장료:4천원

▲연락처:문화예술평화

단 「아리랑」(645-2779)

극단 「아리랑」은 「아버지의

4월1일(월)까지 예술극장 한

이 연극은 딸이 남북공작원이

과정에서 이 사회의 현실을

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나서는

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광범위

각국 안락을 넘나드는 공간의

현황과 한 이 연극은 장기를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단이 낳은 가족사적·민족사적

의 당위성을 느끼게 해준다.

▲연장료:4천원

▲연락처:문화예술평화

단 「아리랑」(645-2779)

극단 「아리랑」은 「아버지의

4월1일(월)까지 예술극장 한

이 연극은 딸이 남북공작원이

과정에서 이 사회의 현실을

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나서는

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광범위

각국 안락을 넘나드는 공간의

현황과 한 이 연극은 장기를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단이 낳은 가족사적·민족사적

의 당위성을 느끼게 해준다.

▲연장료:4천원

▲연락처:문화예술평화

단 「아리랑」(645-2779)

극단 「아리랑」은 「아버지의

4월1일(월)까지 예술극장 한

이 연극은 딸이 남북공작원이

과정에서 이 사회의 현실을

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나서는

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광범위

각국 안락을 넘나드는 공간의

현황과 한 이 연극은 장기를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단이 낳은 가족사적·민족사적

의 당위성을 느끼게 해준다.

▲연장료:4천원

▲연락처:문화예술평화

단 「아리랑」(645-2779)

극단 「아리랑」은 「아버지의

4월1일(월)까지 예술극장 한

이 연극은 딸이 남북공작원이

과정에서 이 사회의 현실을

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나서는

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광범위

각국 안락을 넘나드는 공간의

현황과 한 이 연극은 장기를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단이 낳은 가족사적·민족사적

의 당위성을 느끼게 해준다.

▲연장료:4천원

▲연락처:문화예술평화

단 「아리랑」(645-2779)

극단 「아리랑」은 「아버지의

4월1일(월)까지 예술극장 한

이 연극은 딸이 남북공작원이

과정에서 이 사회의 현실을

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나서는

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광범위

각국 안락을 넘나드는 공간의

현황과 한 이 연극은 장기를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단이 낳은 가족사적·민족사적

의 당위성을 느끼게 해준다.

▲연장료: